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**구순 할머니의 가슴 저미는 일기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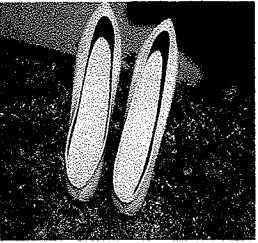
['내 나이 아흔 하나, 세상 떠날 날이 머지 않았지...']

올해 아흔 한 살인 홍영녀 할머니, 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는 일흔이 돼서야 손주에게 한글을 배워 이후부터 맞춤법조차 엉망으로 20여 년 동안 써온 그의 일기에는 '인생'이 담겨 있다. 노년의 외로움이 절절이 담긴 그의 일기는 그만의 일기가 아니다.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꾸역꾸역 참고 살아온 한 여인의 일기요, 우리네 어머니의 일기이며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기다.



[홍 할머니의 닦고 또 닦아 놓은 고무신]

"뽀얗게 고무신을 닦아 햇볕에 내놓았다. 어디 가게 되지 않으니 신어 보지도 않고 다시 닦게 된다. 어디든 떠나고 싶다"



[현 내복을 입고 발일하는 홍 할머니]

"내다 버리려고 했던 내복을 또 빨아 입었다. 낡은 내복을 입는다고 딸들은 야단이다. 새 내복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. 딸들이 사다 준 내복, 조카들이 사 온 내복들이 상자에 담긴 채로 쌓여 있다.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, 자꾸 새 것 입어 휘질러 놓으면 뭐하나 해서다. 그리고 새 옷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을 보면 현 옷을 입어도 뿌듯하다. 나 죽은 후에 다른 없는 이들 입게 주면 얼마나 좋으랴 싶다. 그런 에이 맘을 모르고 딸년들은 낡은 옷을 버리라고 야단이다"



['나는 쓸쓸 해, 가슴이 서러워...']

"오늘도 흰 머리카락 날리면서 산 마을로 너머 가시는 햇님은 어김없이 너머 가시네. 햇님 나는 나는 쓸쓸해. 가슴이 허전해. 가슴이 서러워"

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(마태 7:8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8권 3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 1월 15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오만에의 유혹



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
지극히 경건한 신앙인이
곧잘 더없이 편협되고
비인간적이며
잔인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?

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나 자신하는 나머지 스스로의 잔인성으로 번민하기는커녕 오히려 올바른 대의에 일편단심으로 투신하노라고 자화자찬한다.

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서 계신다고, 하나님의 길과 자기네 길이 하등의 차이도 없다고, 굳게 믿는다.

그 결과로 신비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변형되고 전락한다.

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지 못한다. 즉, 하나님은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.

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유혹, 오만에의 유혹이다.

◀아내에게 보내는 닭살 한마디▶

초점이 잘 안맞고
시선이 붕뜨는 증상에
안과를 찾아갔더니
의사 선생님 말이
"내 눈에 당신이 씩였대!"

◀남편에게 보내는 닭살 한마디▶

전세계인구 = 몰라!
한국의 인구 = 몰라!
하지만 당신이 하나라걸 알아요.
그래서
당신은 내게 소중한요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
가르치는 부모들보다
더 좋은 국민은 없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웃는 얼굴이 없는 사람은
상점을
개설해선 안 된다.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ia	Calvary	다 같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28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3 (시 4편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도자
찬송 Hymn	202장	다 같이
기도 Pray		최재학 안수집사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창세기 6:5-22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「주님의 손」	나무십자가성가대
설교 Sermon	믿음의 사람(3) 살아서 하늘 간 사람 예복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456장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◆1월 예배위원◆

◆1월의 교회력◆

일자	기도	헌금위원	가족찬송	안내
1	정덕수	오지영		분당>노은속 지찬영
8	합심기도	윤경례		
15	정희자	윤영전		<입구>김종건 장현중
22	최재학	윤주야		
29	현석호	이근평		

주 일	예배와 모임
25	성탄주일 송구영신예배(31):11:00
1	신년주일 신년축복새벽기도회주간
8	
22	수요예배개강(25)
29	이삭줍기봉헌

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이사, 이민으로 교회를 찾는 분은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.
주일예배. 아동, 학생: 낮 12시 수요예배: 7:30 pm	새벽기도회: 금 5:55 청년부: 토 오후 2시

- 교우소식
 - *김남희 집사, 태웅. 그동안의 유학생생활 마치고 한국 귀국
 - *김성국 목사. 방파선교회 초청으로 총회 참석 후 토요일 귀국
- 장로, 권사,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지 배부
 - *투표자격: 갈보리교회 등록 교우 중 만20세 이상 세례자
 - *투표방법: 후보자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오늘 집으로 가져 가십시오
(예배후 현관 Table에 이름이 기재된 봉투)
다음주일(29일) 오시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.
※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아직 교우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
교우께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2006년도 수요예배를 시작합니다
 - *그동안 이웃교회 참석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번주(25일)부터 시작합니다
- 교회달력이 만들어 졌습니다.
 - *한 가정에 1부씩 해당되도록 만들었습니다(예배 후 투표용지 Table)
-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안내
 - 1)주소, 전화번호 변경되신 교우께서는 알려 주십시오
 - 2)교우사업체 상호를 알려 주십시오(2005년 요람기재 사업체 제외)
 - *간단한 메모지에 기록해 항존직분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.
- 교우사업체, 직장의 신년축복기도를 위한 심방을 계속합니다
 - <일정> 1월 31일- 2월 초순 까지 <문의> 노은속 권사
- 청년부 "인도단기선교를 위한 음식판매" (뒷편 주자장)
 - *오늘은 자원교우들께서 장만한 여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.

◀착한 시인▶ 봉선화

김상욱

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
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
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.
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
눈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고
손톱에 꽃물 들어던 그 날 생각하시리.
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히 매어 주던
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
지금은 꿈속에 보듯 힐끗만이 서노나.

손톱에 물들여진 빨간 물이
첫 눈을 때까지 남아있으면
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
된다며 가슴 설레며 물들이
던 여자 아이들의 여름 밤.
모두들 자기 나이만큼 흘러
간 세월 속에 가끔은 그 여
름의 밤을 떠올리겠지요.
쑥 냄새 나던 모깃불 연기
의 여름밤이 그리워 낚싯대
들고 허한 마음 채우려 나
섰다가 빈 마음에 달빛만
채우고 돌아왔습니다.